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부터 창조절기가 시작됩니다. 창조절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하나님의 나라를 기원하는 기간으로 대림절 전까지 계속됩니다. 이를 기념해 오늘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집회는 2남, 3·4여선교회 주관 예배로 드립니다.

가을학기 성서학당이 이번 주 수요일(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강합니다. 매월 새로운 강의가 진행됩니다. 9월 강의 제목은 <시편통독>이며 손성현 전도사가 진행합니다. 수요일 저녁 강의는 김기석 목사가 인도하며, 제목은 <신앙의 요체>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집회는 9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9월 3일부터 가을 속회가 시작됩니다. 속별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작은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시간만큼 넓은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을 마련하며 사십시오.

식 당 봉 사 : 최현옥 김순자 이해령 박시내 권현숙 이소순 김정민
9/9 식 당 봉 사 : 최경미 배삼순 강금연 이윤주 박윤숙 이기분 김성은
오늘설거지봉사 : 최양순 노준우 송 샘 이원호
다음 주 설거지 : 이해령 김정민 양상철 박재란
떡 대 접 : 한인철 조윤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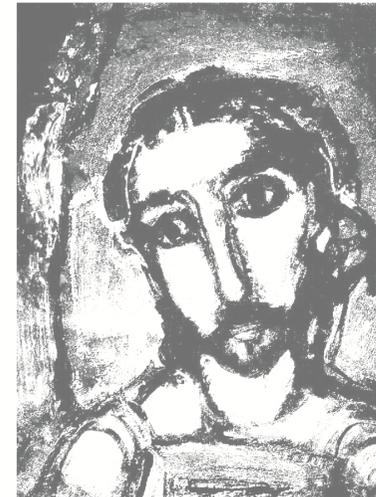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에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일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태풍이 연이어 지나간 후 하늘은 청명해졌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어둡고 무겁습니다. 태풍으로 말미암아 큰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 어두운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의 빛을 보며 힘을 얻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약자를 향한 폭력이 끊이지 않는 이 사회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욕망을 단련하는 어리석은 이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와 사랑, 정의와 평화를 연습하는 이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기적인 욕망의 질주를 멈추게 해 주시고 그의 아픔이 결국에는 나의 아픔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세기	이소애	강순배	권 순	김범진	김미현	김수진	김승현	김수진
김인걸	문영혜	김준우	우순덕	김중수	이순정	김훈동	유경순	문홍일
민병배	문현미	박범희	박미영	박상규	박옥식	박준희	이기분	방문성
박혜경	방 민	방 준	배삼순	배재경	이수정	신진식	변혜정	안보혜
안정숙	오진훈	노순옥	왕수명	윤미경	이경남	이계선	이소순	이동천
이민범	공재량	이범석	류정욱	이성범	권현숙	이용현	이진영	한양미
임승동	백혜숙	장원호	박성희	장재영	김재영	전희수	정한구	왕영순
조병무	송양진	조병익	조정연	최종원	한인철	조윤숙	허신열	홍복선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황현성	이오복				

감사헌금:

김순배 리 봄 박응순 백묘현 우순덕 이경민 이혜수 전 용 한인철
 조윤숙 허호범 박성실 무명3

녹색꿈헌금:

강순배 노준우 이봉옥 이증자 이진영 추현영 한양미 하진솔 하진채

생일감사헌금:

문홍일

장혜숙	백혜숙	심	수회별
노순옥	박성희		
최희영	최경미		
장영숙	신영신		
정경례	진정숙		
박홍재	곽권희		
박효선	허정운		
이순정	김금순		
이형숙	권미숙		
안홍숙	오현정		
정영선	서정순		
박혜경	조향미		
김재흥	오자영		
이범석	이근식		
손성현	곽상준		

마음으로 읽는 글

상(傷)한 영혼을 위하여

고정희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동 잘리어도 새 순은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걱정하면 어딘들 못 가라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라

고통과 설움의 땅 훑훑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삶이 가져다주는 시련 앞에 쉽게 절망하며 살지 마십시오. 주님을 신뢰하며 가야할 곳을 바로 보며 사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희망을 만들며 모든 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열어 가십시오.

아멘. 작은 시련에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크게 흔들리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희망의 빛을 맘 깊이 간직해, 어려운 이웃을 만날 때마다 그 빛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2남, 3·4여선교회	9월 기도의 밤 인도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 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김재흥 목사	이혜수 선생 이성범 집사

9월	영접위원	한완식 홍순구 정원석 박혜경 안홍숙 김현영
	헌금위원	김인걸 박혜경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단순하게 살기

47

목자와 양떼의 관계에 있어서 목자가 양떼인 신자들에게 자기 사랑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합니다. 그는 자기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해요.

가끔, 신자들에게 대단한 너그러움과 따스함을 베풀면서 거꾸로 그들이 자기에게 베푸는 너그러움과 따스함에는 눈이 먼 사제들을 보게 되는데, 그건 일종의 교만입니다. 사제가 자기에게 보여주는 신자들의 사랑에 감사를 표하면 그로써 그들의 덕을 견고하게 해주면서, 더욱 용기를 내어 그리스도인의 순례를 계속하라고 격려 해주는 셈이지요.

이는 사제와 신자들 사이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에게 사랑을 베풀 줄만 알고 그들의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친구 사이는 양쪽이 사랑을 주고받을 때 가능하지요. 서로 상대방의 사랑을 인정해줘야 하는 거예요.

참 목자면서 친구이신 예수님은 당신 사랑을 사람들에게 쏟아 부으시지만 한 게 아니라 몸소 그들에게 신세를 지셨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친지들과 제자들의 친절에 의존하여 하루하루 살아야 하셨지요. 그렇게, 당신이 얻은 바에 감사하심으로써 그들을 당신의 참된 친구요 제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52

오직 바보만이,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 하나로 세상을 바꿔보려 시도하겠지요. 그렇다면 예수야말로 바보였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보들만이 그를 추종하다가 그가 처형당한 뒤에, 그의 일을 계속할 수 있었을 거예요. 따라서 사도들 모두 바보였다고 하겠습니다. 그 바보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진지하게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 또한 같은 바보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방 우리 모두가 바보라는 그

런 말이올시다.

이는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유식한 학자가 아니라 겸손한 목수를 택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또, 어부와 세리를 사도들로 뽑으셨지요. 우리가 과연 그들보다 낫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도, 복음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과 학력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 모두 바보임을 기꺼이 시인합시다. 그러면,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에 마음 놓고 몸을 던질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사도들도 때로는 겁에 질리고 비굴하게 처신하지 않았던가요? 우리 또한 그들처럼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두려워 떨게 할 만한 사건이지요. 그래도 그분의 부활은 우리에게 초인적인 용기를 제공합니다.

56

주일마다 여러분은 빵과 포도주를 받으려고 주님의 식탁에 나옵니다.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여러분 위장을 깨끗하게 하는 약처럼, 여러분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영적 의약품 정도로 알고 있나요? 아니면, 하느님께서 이 단순한 것들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걸 생각해볼 때가 있습니까?

빵과 포도주는,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실 것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노동이 맺은 열매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서 노동을 하느님께 바치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바쳐 그분을 섬기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빵과 포도주를 똑같이 나눠주지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똑같이 받는 거예요. 이는 하느님의 물질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서 각자 필요한 만큼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전체 성사 또한 모든 사람이 동등한 자리를 차지하는 식탁이에요. 한쪽 끝에는 보이지 않는 만형 그리스도를 모시고 다른 쪽 끝에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느님을 모시고 그 사이에 앉아서 형제와 자매의 친교를 나누는 것입니다. -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단순하게 살기」 중에서